

# 무주군, 행정역량 '최고'

### 주민생활 등 17개 지표 호평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행정부 장관상 수상 '영예'

무주군이 지난 27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제6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생산성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예산 등 투입된 자원 대비 얼마나 생산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했는지를 평가하고 지역경제와 환경, 안전, 문화, 복지 등 정책성과에 대한 생산성도 같이 측정해 주는 상으로, 무주군은 행정관리와 지방재정, 지역경제, 주민생활 등 17개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공공시설물 운영방식을 개선해 18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천원이면 어디든 오갈 수 있는 산골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이 주목을 받았다.

또한 △마을로 가는 축제 등을 통해 행정과 정책의 생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골드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해 1,256건의 업무개선 효과를 창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주도하는 등 새로운 정책들을 펼쳐 관심을 모았다. 무주군의 주요 사례들은 이날 생산성 대상 수상기관 발표 시간을 통해 공유됐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작은 실천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고, 주민들의 삶을 조금 더 편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실천한 계기가 됐다"며 "생산성 대상 수상한 자치단체다운 면모로 앞으로 더욱 행정 역량을 키우고 생활 속에서 펼쳐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진행된 제6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88개 시·군·구가 응모했으며 이들 중 무주군을 포함해 28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제6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상 수상

수상도시 중에는 무주군과 자매결연(1996)을 맺고 그동안 행정과 문화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왔던 부산광역시 기장군도 있어 큰 관심을 모았다. 기장군은 인구 5만 이상 군 단위에서, 무주군은 인구 5만 미만 군 단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무주군 기획조정실 한상술 실장은 "무주와 기장이 영·호남을 넘나드는 인연으로 2015년부터는 간부 공무원 교환근무와 재난업무협약 체결 등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노력을 해왔다"며 "이러한 실질적인 교류가 두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고 같은 분야에서 동반 수상을 하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수상도시 중에는 무주군과 자매결연(1996)을 맺고 그동안 행정과 문화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왔던 부산광역시 기장군도 있어 큰 관심을 모았다. 기장군은 인구 5만 이상 군 단위에서, 무주군은 인구 5만 미만 군 단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무주군 기획조정실 한상술 실장은 "무주와 기장이 영·호남을 넘나드는 인연으로 2015년부터는 간부 공무원 교환근무와 재난업무협약 체결 등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노력을 해왔다"며 "이러한 실질적인 교류가 두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고 같은 분야에서 동반 수상을 하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수상도시 중에는 무주군과 자매결연(1996)을 맺고 그동안 행정과 문화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왔던 부산광역시 기장군도 있어 큰 관심을 모았다. 기장군은 인구 5만 이상 군 단위에서, 무주군은 인구 5만 미만 군 단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무주군 기획조정실 한상술 실장은 "무주와 기장이 영·호남을 넘나드는 인연으로 2015년부터는 간부 공무원 교환근무와 재난업무협약 체결 등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노력을 해왔다"며 "이러한 실질적인 교류가 두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고 같은 분야에서 동반 수상을 하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수상도시 중에는 무주군과 자매결연(1996)을 맺고 그동안 행정과 문화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왔던 부산광역시 기장군도 있어 큰 관심을 모았다. 기장군은 인구 5만 이상 군 단위에서, 무주군은 인구 5만 미만 군 단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무주군 기획조정실 한상술 실장은 "무주와 기장이 영·호남을 넘나드는 인연으로 2015년부터는 간부 공무원 교환근무와 재난업무협약 체결 등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노력을 해왔다"며 "이러한 실질적인 교류가 두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고 같은 분야에서 동반 수상을 하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수상도시 중에는 무주군과 자매결연(1996)을 맺고 그동안 행정과 문화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왔던 부산광역시 기장군도 있어 큰 관심을 모았다. 기장군은 인구 5만 이상 군 단위에서, 무주군은 인구 5만 미만 군 단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무주군 기획조정실 한상술 실장은 "무주와 기장이 영·호남을 넘나드는 인연으로 2015년부터는 간부 공무원 교환근무와 재난업무협약 체결 등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노력을 해왔다"며 "이러한 실질적인 교류가 두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고 같은 분야에서 동반 수상을 하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수상도시 중에는 무주군과 자매결연(1996)을 맺고 그동안 행정과 문화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왔던 부산광역시 기장군도 있어 큰 관심을 모았다. 기장군은 인구 5만 이상 군 단위에서, 무주군은 인구 5만 미만 군 단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무주군 기획조정실 한상술 실장은 "무주와 기장이 영·호남을 넘나드는 인연으로 2015년부터는 간부 공무원 교환근무와 재난업무협약 체결 등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노력을 해왔다"며 "이러한 실질적인 교류가 두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고 같은 분야에서 동반 수상을 하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수상도시 중에는 무주군과 자매결연(1996)을 맺고 그동안 행정과 문화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왔던 부산광역시 기장군도 있어 큰 관심을 모았다. 기장군은 인구 5만 이상 군 단위에서, 무주군은 인구 5만 미만 군 단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무주군 기획조정실 한상술 실장은 "무주와 기장이 영·호남을 넘나드는 인연으로 2015년부터는 간부 공무원 교환근무와 재난업무협약 체결 등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노력을 해왔다"며 "이러한 실질적인 교류가 두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고 같은 분야에서 동반 수상을 하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수상도시 중에는 무주군과 자매결연(1996)을 맺고 그동안 행정과 문화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왔던 부산광역시 기장군도 있어 큰 관심을 모았다. 기장군은 인구 5만 이상 군 단위에서, 무주군은 인구 5만 미만 군 단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무주군 기획조정실 한상술 실장은 "무주와 기장이 영·호남을 넘나드는 인연으로 2015년부터는 간부 공무원 교환근무와 재난업무협약 체결 등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노력을 해왔다"며 "이러한 실질적인 교류가 두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고 같은 분야에서 동반 수상을 하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수상도시 중에는 무주군과 자매결연(1996)을 맺고 그동안 행정과 문화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왔던 부산광역시 기장군도 있어 큰 관심을 모았다. 기장군은 인구 5만 이상 군 단위에서, 무주군은 인구 5만 미만 군 단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무주군 기획조정실 한상술 실장은 "무주와 기장이 영·호남을 넘나드는 인연으로 2015년부터는 간부 공무원 교환근무와 재난업무협약 체결 등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노력을 해왔다"며 "이러한 실질적인 교류가 두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고 같은 분야에서 동반 수상을 하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수상도시 중에는 무주군과 자매결연(1996)을 맺고 그동안 행정과 문화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왔던 부산광역시 기장군도 있어 큰 관심을 모았다. 기장군은 인구 5만 이상 군 단위에서, 무주군은 인구 5만 미만 군 단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무주군 기획조정실 한상술 실장은 "무주와 기장이 영·호남을 넘나드는 인연으로 2015년부터는 간부 공무원 교환근무와 재난업무협약 체결 등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노력을 해왔다"며 "이러한 실질적인 교류가 두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고 같은 분야에서 동반 수상을 하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수상도시 중에는 무주군과 자매결연(1996)을 맺고 그동안 행정과 문화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왔던 부산광역시 기장군도 있어 큰 관심을 모았다. 기장군은 인구 5만 이상 군 단위에서, 무주군은 인구 5만 미만 군 단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무주군 기획조정실 한상술 실장은 "무주와 기장이 영·호남을 넘나드는 인연으로 2015년부터는 간부 공무원 교환근무와 재난업무협약 체결 등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노력을 해왔다"며 "이러한 실질적인 교류가 두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고 같은 분야에서 동반 수상을 하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수상도시 중에는 무주군과 자매결연(1996)을 맺고 그동안 행정과 문화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왔던 부산광역시 기장군도 있어 큰 관심을 모았다. 기장군은 인구 5만 이상 군 단위에서, 무주군은 인구 5만 미만 군 단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무주군 기획조정실 한상술 실장은 "무주와 기장이 영·호남을 넘나드는 인연으로 2015년부터는 간부 공무원 교환근무와 재난업무협약 체결 등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노력을 해왔다"며 "이러한 실질적인 교류가 두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고 같은 분야에서 동반 수상을 하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새 변화 시도하는 무주경찰

### 단속보다 예방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화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관광 지 무주도 상권이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무주경찰서 최성규 서장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단속보다 예방에 집중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월에 제7대 무주경찰서에 부임한 최성규 서장은 취임 100여일이 지나고 있다.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직원 소통과 신뢰·화합을 바탕으로 맞춤형 민생치안을 펼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최 서장은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통한 예방범죄를 펼쳐 민생치안이 확보되고 있다. 여기에서 지역경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관광 무주에서 많은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민생치안도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을 강조하며, 경찰의 참모습을 그려가고 있다. 읍·면 단속도 강화보다 SM 등을 통해 사전 통보하는 등 지역 상권 살리기에 나서 상인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최 서장은 "관광지는 모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다"면서 "이런 곳에서 경찰이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관광객들을 오히려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경기침체로 관광객도 지갑을 열지 않아 지역 상권은 바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점을 타파하기 위해 최 서장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다시 무주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무주서 "직원 소통·신뢰·화합이 조화를 이룰 때 민생치안과 지역상권도 활력을 찾고 안전하게 유지 된다"며 "직원 소통과 신뢰가 무너지면 민생치안도 범죄 예방도 확립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또 "무주 관광지 발전에 너나없이 군민 모두가 동참할 때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다"며 "군민들이 법의 질서를 준수하고 이행할 때 관광무주는 치안 확보는 물론 안전한 관광지로 거듭나게 된다"고 했다.

주민들의 눈높이 치안행정을 펼치기 위해 민원인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민원 당일 조사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민원인들이 경찰서 방문을 최소화 하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고객만족도 극대화 하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교통이 불편해 경찰서 출석이 어려운 주민에게 직접 현지에 나가 사건 면담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을 정도로 친절 경찰살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 서장은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무주에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 한다"고 말할 정도로 청정지역 무주에 대한 애착심을 강하게 드러내 주민들의 신뢰가 갈수록 두터워지며 배태당 경찰살상을 보여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점을 타파하기 위해 최 서장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다시 무주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무주서 "직원 소통·신뢰·화합이 조화를 이룰 때 민생치안과 지역상권도 활력을 찾고 안전하게 유지 된다"며 "직원 소통과 신뢰가 무너지면 민생치안도 범죄 예방도 확립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또 "무주 관광지 발전에 너나없이 군민 모두가 동참할 때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다"며 "군민들이 법의 질서를 준수하고 이행할 때 관광무주는 치안 확보는 물론 안전한 관광지로 거듭나게 된다"고 했다.

주민들의 눈높이 치안행정을 펼치기 위해 민원인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민원 당일 조사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민원인들이 경찰서 방문을 최소화 하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고객만족도 극대화 하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교통이 불편해 경찰서 출석이 어려운 주민에게 직접 현지에 나가 사건 면담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을 정도로 친절 경찰살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 서장은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무주에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 한다"고 말할 정도로 청정지역 무주에 대한 애착심을 강하게 드러내 주민들의 신뢰가 갈수록 두터워지며 배태당 경찰살상을 보여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 서장은 "관광지는 모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다"면서 "이런 곳에서 경찰이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관광객들을 오히려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경기침체로 관광객도 지갑을 열지 않아 지역 상권은 바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점을 타파하기 위해 최 서장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다시 무주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무주서 "직원 소통·신뢰·화합이 조화를 이룰 때 민생치안과 지역상권도 활력을 찾고 안전하게 유지 된다"며 "직원 소통과 신뢰가 무너지면 민생치안도 범죄 예방도 확립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최 서장은 "관광지는 모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다"면서 "이런 곳에서 경찰이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관광객들을 오히려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경기침체로 관광객도 지갑을 열지 않아 지역 상권은 바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점을 타파하기 위해 최 서장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다시 무주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무주서 "직원 소통·신뢰·화합이 조화를 이룰 때 민생치안과 지역상권도 활력을 찾고 안전하게 유지 된다"며 "직원 소통과 신뢰가 무너지면 민생치안도 범죄 예방도 확립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최 서장은 "관광지는 모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다"면서 "이런 곳에서 경찰이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관광객들을 오히려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경기침체로 관광객도 지갑을 열지 않아 지역 상권은 바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점을 타파하기 위해 최 서장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다시 무주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무주서 "직원 소통·신뢰·화합이 조화를 이룰 때 민생치안과 지역상권도 활력을 찾고 안전하게 유지 된다"며 "직원 소통과 신뢰가 무너지면 민생치안도 범죄 예방도 확립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최 서장은 "관광지는 모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다"면서 "이런 곳에서 경찰이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관광객들을 오히려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경기침체로 관광객도 지갑을 열지 않아 지역 상권은 바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점을 타파하기 위해 최 서장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다시 무주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무주서 "직원 소통·신뢰·화합이 조화를 이룰 때 민생치안과 지역상권도 활력을 찾고 안전하게 유지 된다"며 "직원 소통과 신뢰가 무너지면 민생치안도 범죄 예방도 확립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최 서장은 "관광지는 모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다"면서 "이런 곳에서 경찰이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관광객들을 오히려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경기침체로 관광객도 지갑을 열지 않아 지역 상권은 바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점을 타파하기 위해 최 서장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다시 무주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무주서 "직원 소통·신뢰·화합이 조화를 이룰 때 민생치안과 지역상권도 활력을 찾고 안전하게 유지 된다"며 "직원 소통과 신뢰가 무너지면 민생치안도 범죄 예방도 확립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최 서장은 "관광지는 모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다"면서 "이런 곳에서 경찰이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관광객들을 오히려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경기침체로 관광객도 지갑을 열지 않아 지역 상권은 바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점을 타파하기 위해 최 서장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다시 무주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무주서 "직원 소통·신뢰·화합이 조화를 이룰 때 민생치안과 지역상권도 활력을 찾고 안전하게 유지 된다"며 "직원 소통과 신뢰가 무너지면 민생치안도 범죄 예방도 확립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최 서장은 "관광지는 모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다"면서 "이런 곳에서 경찰이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관광객들을 오히려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경기침체로 관광객도 지갑을 열지 않아 지역 상권은 바닥으로

# 진안군, 3/4분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진안군, 3/4분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지난 28일 3/4분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부군수 주재로 개최했다. 기획실을 포함한 9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지난년도 이월분 체납액과 현년도 발생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과 향후 효과적 징수방안 등 전반적인 문제점·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보고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이근상 부군수는 각종 법집행 위반 과태료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통한 징수대책을 당부했다.

또한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회포환 영치, 재산압류 등을 통한 공매처분과 예금채권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줄 것과 과감한 결속처분을 해당부서에 주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지난 28일 3/4분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부군수 주재로 개최했다. 기획실을 포함한 9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지난년도 이월분 체납액과 현년도 발생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과 향후 효과적 징수방안 등 전반적인 문제점·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보고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이근상 부군수는 각종 법집행 위반 과태료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통한 징수대책을 당부했다.

또한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회포환 영치, 재산압류 등을 통한 공매처분과 예금채권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줄 것과 과감한 결속처분을 해당부서에 주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지난 28일 3/4분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부군수 주재로 개최했다. 기획실을 포함한 9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지난년도 이월분 체납액과 현년도 발생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과 향후 효과적 징수방안 등 전반적인 문제점·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보고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이근상 부군수는 각종 법집행 위반 과태료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통한 징수대책을 당부했다.

또한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회포환 영치, 재산압류 등을 통한 공매처분과 예금채권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줄 것과 과감한 결속처분을 해당부서에 주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지난 28일 3/4분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부군수 주재로 개최했다. 기획실을 포함한 9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지난년도 이월분 체납액과 현년도 발생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과 향후 효과적 징수방안 등 전반적인 문제점·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보고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이근상 부군수는 각종 법집행 위반 과태료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통한 징수대책을 당부했다.

또한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회포환 영치, 재산압류 등을 통한 공매처분과 예금채권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줄 것과 과감한 결속처분을 해당부서에 주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지난 28일 3/4분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부군수 주재로 개최했다. 기획실을 포함한 9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지난년도 이월분 체납액과 현년도 발생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과 향후 효과적 징수방안 등 전반적인 문제점·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보고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이근상 부군수는 각종 법집행 위반 과태료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통한 징수대책을 당부했다.

또한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회포환 영치, 재산압류 등을 통한 공매처분과 예금채권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줄 것과 과감한 결속처분을 해당부서에 주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지난 28일 3/4분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부군수 주재로 개최했다. 기획실을 포함한 9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지난년도 이월분 체납액과 현년도 발생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과 향후 효과적 징수방안 등 전반적인 문제점·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보고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이근상 부군수는 각종 법집행 위반 과태료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통한 징수대책을 당부했다.

또한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회포환 영치, 재산압류 등을 통한 공매처분과 예금채권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줄 것과 과감한 결속처분을 해당부서에 주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지난 28일 3/4분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부군수 주재로 개최했다. 기획실을 포함한 9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지난년도 이월분 체납액과 현년도 발생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과 향후 효과적 징수방안 등 전반적인 문제점·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보고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이근상 부군수는 각종 법집행 위반 과태료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통한 징수대책을 당부했다.

또한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회포환 영치, 재산압류 등을 통한 공매처분과 예금채권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줄 것과 과감한 결속처분을 해당부서에 주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지난 28일 3/4분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부군수 주재로 개최했다. 기획실을 포함한 9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지난년도 이월분 체납액과 현년도 발생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과 향후 효과적 징수방안 등 전반적인 문제점·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보고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이근상 부군수는 각종 법집행 위반 과태료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통한 징수대책을 당부했다.

또한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회포환 영치, 재산압류 등을 통한 공매처분과 예금채권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줄 것과 과감한 결속처분을 해당부서에 주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지난 28일 3/4분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부군수 주재로 개최했다. 기획실을 포함한 9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지난년도 이월분 체납액과 현년도 발생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과 향후 효과적 징수방안 등 전반적인 문제점·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보고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이근상 부군수는 각종 법집행 위반 과태료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통한 징수대책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2018 국가예산사업 2차 발굴보고회 58건 2425억원 규모

장수군은 지난 28일 2018년 국가예산 사업 2차 발굴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김운섭 부군수가 주재하였으며 실·과, 사업소장 보고를 통해 2018년 새롭게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장수군이 발굴한 사업은 지난 8월 1차 보고회 31건 1,926억원의 사업과 이번 2차 발굴된 27건 499억원 규모의 사업을 포함해 총 58건 2,425억원의 규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고분야의 팔공역 사공원 조성(총 230억원) 장수군 ICT 힐링센터(총 190억원), 금강생태하천 복원(100억원) 등과 국책사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치(총50억원) 등이 발굴되었다.

장수군은 이번 발굴된 사업들의 부서 재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얻어 전북도와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사업 설명 활동 등을 통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장수군 김운섭 부군수는 '내년 1월까지 실시되는 정부 업무보고와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은 이번 발굴된 사업들의 부서 재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얻어 전북도와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사업 설명 활동 등을 통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장수군 김운섭 부군수는 '내년 1월까지 실시되는 정부 업무보고와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은 이번 발굴된 사업들의 부서 재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얻어 전북도와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사업 설명 활동 등을 통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장수군 김운섭 부군수는 '내년 1월까지 실시되는 정부 업무보고와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은 이번 발굴된 사업들의 부서 재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얻어 전북도와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사업 설명 활동 등을 통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장수군 김운섭 부군수는 '내년 1월까지 실시되는 정부 업무보고와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은 이번 발굴된 사업들의 부서 재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얻어 전북도와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사업 설명 활동 등을 통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장수군 김운섭 부군수는 '내년 1월까지 실시되는 정부 업무보고와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은 이번 발굴된 사업들의 부서 재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얻어 전북도와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사업 설명 활동 등을 통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장수군 김운섭 부군수는 '내년 1월까지 실시되는 정부 업무보고와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은 이번 발굴된 사업들의 부서 재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얻어 전북도와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사업 설명 활동 등을 통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장수군 김운섭 부군수는 '내년 1월까지 실시되는 정부 업무보고와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은 이번 발굴된 사업들의 부서 재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얻어 전북도와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사업 설명 활동 등을 통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장수군 김운섭 부군수는 '내년 1월까지 실시되는 정부 업무보고와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은 이번 발굴된 사업들의 부서 재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얻어 전북도와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사업 설명 활동 등을 통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장수군 김운섭 부군수는 '내년 1월까지 실시되는 정부 업무보고와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은 이번 발굴된 사업들의 부서 재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얻어 전북도와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사업 설명 활동 등을 통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장수군 김운섭 부군수는 '내년 1월까지 실시되는 정부 업무보고와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